"최적가치낙찰제 도입·지역제한 인접市道 확대 땐 줄도산"

지역 중소 건설사들 '부글부글'

전남 34개사 포함 전국 885개 업체 행안부에 반대 건의문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내놓은 최적가치낙찰제 도입과 지역제한 인접 시·도 확대 방안이 지역 중소 건설사들을 도산으로 내몰게 된다는 이유다.

1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금호건설·남화토건 등 전남지역 34개 건설사를 포함해 전국 885개 업체는 지난달 31일 최적가치낙찰제 도입 철회 및 지역제한 인접 시·도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건설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입찰 참여는 물론 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적격심사를 대체하는 최적가치낙찰제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높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시공품질과 제안내용, 기술능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현행 적격심사를 대체해 가격과 시공품질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50~80% 비중을 차지해 공정성에 담보하기 어렵고 공사 따내기 위한 로비도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능력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 건설업체는 입찰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제한 입찰의 인접 시·도 확대를 바라보는 지역 건설업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역 내 공사를 인접 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일부 지역업체에 공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남의 경우 인접한 광주와 전북, 경남지역 건설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취지가 퇴색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감사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 정부는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가 공사 비중은 47%에서 64%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업계는 최근 공공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이 업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며 불만이 높다.

최상준(남화토건 대표이사) 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최저가낙찰제는 업체 간 제살깎기 경쟁을 불러 건설업계의 붕괴를 가져왔다"면서 "이윤 없는 공사는 원도급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까지 짐이 돼 업계 전반에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한 건설사 대표는 "최적가치낙찰제는 기술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입찰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고, 주관적 평가가 포함돼 입찰과정에서 로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 안심벌꿀 드세요"

1일 오전 서울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꿀벌 의상을 입은 어린이와 모델들이 농협 안심벌꿀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안심벌꿀은 농협안심의 네번째 브랜드이며 농협 핵심양봉농가에서 동일한 사양관리 기준으로 벌꿀생산을 전담하고 국내 최초로 생산자 표시제를 도입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 제품이다. /연합뉴스

5월 무역수지 흑자 27억 4600만 달러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이 21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식경제부는 5월 수출액은 480억900만달러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3.5% 증가했지만 4월(491억5300만달러)보다는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452억6200만달러로 29.9%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7억4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일평균 수출액은 4월 20억9000만달러에서 다시 증가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출은 석유제품과 선박 등 주요품목에서 증가폭이 컸다.

품목별로 석유제품은 87.0%, 무선통신기기는 33.9% 늘어났으며 석유화학 26.7%, 자동차 26.5%, 선박 26.0%, 철강 23.7%, 자동차부품 22.5% 등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는 5.3% 감소했다.

4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37.9%였다. /연합뉴스

혁신도시 지역업체 몫 커진다

최대 49%까지 … 한전 공사부터 적용

나주에 조성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이 최대 49%까지 확대된다.

조달청은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공사 입찰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종전 4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역업체 지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비율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 주간사 건설업체의 하한 지분(51%)을 제외한 49%까지 지방업체의 지분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지방이전 대상 157개 공공기관 중 해당기관 직접 발주분을 제외한 80개 기관의 입찰을 대행할 예정이다.

이 중 32개 기관(총액 2조2000억원 상당)의 입찰방식이 확정된 상태로, 27건이 PQ대상 공사여서 해당 지역업체에 돌아갈 혜택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오는 7일 PQ를 진행하는 2766억원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청사 신축공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또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가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 시 열악한 하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많이 활용한 업체는 최대 6점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 개발 및 활용도를 높여 건설기술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종진 중기공단 이사 방문

유종진(54)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이사가 1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했다.

유 국제이사는 이날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무진기연을, 2일에는 영암 대불산단의 (유)성문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위해선 전라선 KTX 속도 230㎞로"

전남대 최창호 교수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150㎞인 전라선 KTX를 23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 최창호 교수는 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라선 철도 고속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수도권 거주 관람객이 여수 박람회장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6시간 정도로 역대 엑스포 개최지 중 최장시간이 걸리고, 유입차량도 하루 최대 7만3000여대로 예상되지만 주차시설은 3만여대에 불과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같은 교통 불편으로 1000만명 정도로 예상되는 관람객 수가 300만명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을 최고 시속 230㎞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고속화사업이 내년 엑스포 개최 이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개통되는 전라선 KTX는 최고속도가 시속 150㎞에 불과해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21분정도 걸린다. 하지만 익산~여수 구간을 고속화할 경우 30분 이상 단축돼 2시간50분이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는 이어 "최근 열린 일본 아이치와 중국 상하이 박람회, 유럽 등에서도 철도가 관람객 수송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면서 "여수엑스포 조직위도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한 만큼 고속화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4년 완공되는 호남고속철도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33분으로 줄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 5월 주식거래량·대금 감소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5월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했다.

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2011년 5월 광주·전남지역 투자자 주식거래 동향' 결과를 보면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량은 3억5579만주로 지난 4월보다 1억9227만주(35.08%) 감소했고, 거래대금도 모두 3조3484억원으로 지난 4월보다 2조417억원(37.88%) 줄어들었다.

반면 지역 투자자들의 순매수량은 지난 4월(579만주)보다 1390만주가 증가했다.

지역 투자자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2.66%로 지난 4월(2.67%)보다 다소 줄었고, 거래대금 비중은 1.90%로 지난 4월(2.23%)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역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진흥기업, JW홀딩스, 일신석재, SK증권, 금양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AD모터스, 시노펙스그린테크, 미주제강, 티케이케미칼, 아인스M&M 등의 순이었다.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아차, OCI, 하이닉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티케이케미칼,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멜파스, 부스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수도권·비수도권간 아파트값 격차 줄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비수도권간 아파트값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전국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는 3.3㎡당 1234만원, 비수도권은 530만원으로 지역간 격차는 704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말 841만원보다 137만원 줄어든 수치다. 1291만원이었던 수도권 집값은 3년만에 57만원이 떨어진 반면 비수도권은 450만원에서 80만원 오르면서 집값 차이가 성큼 좁혀졌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141.34 (-1.13)
▼ 코스닥지수	483.23 (-1.31)
▲ 금리 (국고채 3년)	3.64% (+0.05)
▼ 원·달러 환율	1074.60원 (-4.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 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m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엇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